

전남 생산 신재생에너지 해저 아닌 지상 송전 길 열렸다

해수부, 습지보전법 개정...해상풍력 송전 가공선로 설치 허용 건설비용 3000억원 절감·시공기간 70개월→32개월로 단축

전남에서 생산한 신재생 에너지를 해저가 아닌 지상으로 송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습지보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4월부터 습지보호구역에 가공선로(架空電線路) 설치를 허용했다.

기존 습지보전법은 습지보호구역에서는 생태계 보전 등을 이유로 해저로만 송전선로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전남도가 신안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공동접속설비 구축 사업이 난항이 예상된다. 해저 송전선로는 시공 기간이 길고 건설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지상 송전선로 건설이 가능해지면서 전남도는 건설비용 3000억원을 아끼고 시공기간도 70개월에서 32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있다.

전남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위해 '단거리 갯벌 구간 내 가공선로 횡단 시 환경영향 검토 용역'을 발주, 단거리 송전선로의 경우 지상 송전선로(가

공선로)보다 해저 송전선로생태계 훼손 정도가 적다는 결과를 내고, 환경단체 등을 설득했다.

또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앞두고 제때 전력이 보내질 수 있도록 용역 결과를 해수부, 환경부,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 등에 제출했다.

전남도가 추진 중인 3.2GW(기가와트)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은 지난 2월 한국에너지공단 평가를 통과했으며 현재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전남도는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 해상풍력의 적기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협력해준 환경단체를 포함한 해수부, 환경부, 기재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 환경 등 관계기관에 감사를 표한다"며 "갯벌과 조류 등 생태계에 가해지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한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추진되도록 한전,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산불 피해 이재민에 생필품 전달

광주시 서구청 주차장에서 지난 31일 서구 공무원들과 양동 장미이 화원들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주민들에게 생필품과 함께 전달할 주먹밥을 만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산림교육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11일까지 숲해설가 등 3개 분야

전남도가 '산림 스타강사' 발굴을 위한 '산림교육 경연대회' 참가자를 11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6월 중 장성 축령산 편백숲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5 전남도 산림교육 경연대회'는 현장에서 활동 중인 산림교육 분야 전문가의 기량을 겨루는 장이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7차례 대회를 치뤘 총 70여 명의 산림 스타강사를 발굴했다. 산림교육의 질적 성장과 프로그램 다양화를 이뤄냈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경연대회의 수상작은 산림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적용된다.

경연대회 경쟁 분야는 숲 해설가와 유아숲지도

사, 산림치유지도사, 3개 분야 전문가로 전남에서 활동 중인 강사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자는 전남도 산림휴양과에 공문, 우편 및 이메일로 참가신청서와 활동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신청서와 활동계획서 서식은 전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전문가 현장심사로 진행된다. 1차 심사는 기획력, 창의성, 심미성 항목을 종합 평가하며 2차 심사에는 도입, 분해설, 마무리 등 프로그램 전반의 구성력과 전달력 등을 평가한다. 심사는 참여자 관심 유도, 주제 전달력, 진행 태도 및 마무리 능력까지 종합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전남도지사상이 수여되며, 대상 1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3명, 장려상 6명 등 13명의 수상자가 선정된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관광공사, 관광기업 경쟁력 강화 돕는다

맞춤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광주시관광공사가 지역 관광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광주시관광공사가 지역 관광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2025 광주 관광기업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기업을 4월 11일 까지 모집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을 제공

해 관광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관광분야의 지역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경영개선 지원을 통해 사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예비 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관광 관련 업체가 신청 대상업체이다.

선발된 기업에는 성장단계 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 고도화를 지원한다. 총 16개업체를 선정해 각 업체마다 최대 10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이 제공된다. /정병호 기자 jusbh@

사무공간·기술고도화 지원...광주시, 청년 창업 기업가 지원 확대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추진도

광주시가 지역 청년 창업 기업가들의 성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 제공한다.

광주시는 4월부터 '맞춤형 예비 창업자 발굴육성 사업'으로 지역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지원에서부터 자금 지원까지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무공간·거주시설 지원', '기술고도화 자금 지원', '맞춤형 상담 및 투자유치 지원', '특례보증 지원' 등 4대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에서 창업한지 3년 이내 기업으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지역 청년 초기창업기업'이 대상이다.

광주시는 임대료 부담으로 사무실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기업을 위해 '아이플렉스 광주'에 사무공간을 제공한다.

21개 업체가 입주 가능하며, 최초 6개월 사용 후 반기별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간 입주할 수 있다.

거주시설의 경우 청년 기업 7개 업체를 대상으로, 20평대 공간을 월 18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한다.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심사를 통해 8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3000만원의 청년기업의 기술고도화 자금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아이플렉스 입주기업에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광주지역 전체 청년 초기창업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선정 기업은 전문가로부터 기업 발전 방향에 다

양한 맞춤형 점검도 받을 수 있다.

맞춤형 상담 및 투자유치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지난해에는 청년 기업 21개 업체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30개 이상 청년 기업으로 확대한다.

청년 기업의 자금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도 병행된다.

특례보증 지원은 업계경력 7년을 넘지 않고 광주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청년 창업기업이 대상이다. 광주시와 협약한 은행에서 기업당 최대 5000만원을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대출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청년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도 추진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13세 미만 어린이 환경보건이용권 신청하세요"

상품·서비스·진료비 이용권 17일까지 신청

"정부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환경보건이용권을 신청해 많은 혜택 받으세요"

광주시는 환경부가 전국 기초생활수급 13세 미만 아동 1만명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도입·시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환경성 질환 예방 및 실내환경 개선을 통해 아동건강 보호,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수준 향상이 목표로 전국적으로 1만명을 무작위 추첨해 선정해 지원한다.

'환경보건이용권'은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10만원 상당의 '상품·서비스·진료비 이용권'과 실내환경 방문 컨설팅 및 필요 시 장판·벽지 교체를 지원하는 '실내환경 컨설팅 이용권'으로 나뉜다.

'상품·서비스·진료비 이용권'은 31일부터 4월 17일까지 신청가능하며, 4월 21일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어린이당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전국에서 8500명을 선정한다. 어린이 한 명당 온라인몰에서 필요 물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진료비·약제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포인트 10만원의 이용권이 지급된다.

환경보건이용권 포인트를 온라인몰 전용 포인트로 전환하면 환경보건이용권 포인트로 다시 전환이 안된다.

'실내환경 컨설팅 이용권'은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하며 30일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가구당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전국 1500명을 선정한다. 환경유해인자 진단·측정 및 컨설팅을 받고 필요한 경우 장판·벽지 교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환경보건이용권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13세 미만(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어린이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성인이 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정병호 기자 jusbh@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기부 프로그램

우리 동네 나눔가게 함께해 주세요!

"어려운 이웃에게 맛있는 피자를 선물한 인천의 피자가게를 아시나요?"

「우리동네 함께하는 나눔가게」는 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과 나눔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 해당지역 거점기관에 문의해주세요.
(상담을 통해 기부내용을 조정합니다.)

<p>SSN 목포시사회복지협의회 T. 061-984-8947</p>	<p>SSN 여수시사회복지협의회 T. 061-686-7702</p>	<p>SSN 순천시사회복지협의회 T. 061-752-8206</p>
<p>SSN 나주시사회복지협의회 T. 061-333-8946</p>	<p>SSN 광양시사회복지협의회 T. 061-793-0059</p>	<p>SSN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 T. 061-832-2500</p>
<p>SSN 화순군사회복지협의회 T. 061-373-6800</p>	<p>SSN 무안군사회복지협의회 T. 061-453-9996</p>	<p>SSN 영광군사회복지협의회 T. 061-351-2240</p>
<p>SSN 장성군사회복지협의회 T. 061-393-5009</p>	<p>SSN 진도군사회복지협의회 T. 061-544-3888</p>	

함께하는 나눔가게 (25.3현재)

고흥: 뉴고흥마트, 가화루, 터미널이발관, 녹동진맛김치
 광양: 정통광양기정떡
 무안: 동명아트프라자, 임태숙혜어, 자유번신미용실, 무안화원, 충만치킨 무안점, 밀베이커리, 응급실국물떡볶이, 베스킨라빈스 전남무안점, 베이코모드
 영광: 셀러드있어you, 충만치킨
 장성: BHC장성영천점, 지아연혜어, 대성정육회관, 피자지도, 장원숯불갈비, 리버사이드, 애나드베이커리, 영천두부마을
 진도: 까까미용실, 효자마트, 자금성
 목포: 한우랑축산, 시루랑절구랑, 형제상회
 나주: 한돈명가, 실가헤어HEADSPA, 정다운 식당, 설화베이커리

SSN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T. 061-285-8946

본 사업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합니다.